

●지구발전오라'그대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展

사라지는 존재,



'광천시민아파트' 실제 모습(왼쪽)과 메타버스 속 '광천시민아파트' 모습

<지구발전오라 제공>

새롭게 기억하다

우리 주변의 역사적인 장소,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질 장소를 탐색해 또 하나의 공간에 '존재'시키는 전시가 마련됐다.

지역 청년예술가단체 '지구발전오라'의 메타버스 전시 '그대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가 온·오프라인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 속 많은 것들이 가상으로 옮겨졌고, 가상 활동은 더 빠르고 치밀하게 삶의 일부가 됐다.

3년여 팬데믹 기간동안 비대면과 가상 세계는 큰 화두로 떠올랐으며, 우리 삶은 실제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현실 세계,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동안 우리는 '인간'과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망각하며 지내왔다.

지구발전오라는 지난해 '방직공장'을 기념화한 메타버스 전시 '사라지는 흔적이 픽셀화 될 때'에 이어 '광천시민아파트'를 재해석한 가상공간 전시를 선보인다.

1970년 광주 최초 연립아파트인 광천시민아파트는 들불야학 활동지로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5·18 주요 사적지다.

민중언론 '투사회보'가 제작되기도 했던 이곳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역사적 가치는 상실된 채 도심 속 허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 곁에 '존재'하며 역사적 가치를 계속 되새겨야 하는 장소는 철거 위기를 맞이했고, 가·나·다 세 개 동 중 '나'동의 보존이 결정됐다.

이번 전시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존재'에 대한 기억을 복기하고, 가상공간에 영속성 있는 장소로 남기는 작업이다.

메타버스 '제페토(ZEPETO)'에 접속하면 현실 세계 모습과 거의 흡사한 광천시민아파트 일부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역사적 공간에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고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전시에는 강미미, 박인선, 이선희, 임현채 총 4명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

들불야학 활동지 보존 광천시민아파트 가상공간 구축

발산마을 역사문화박물관서 8월1일 실물전시도 선보



한다. 이들은 '광천시민아파트'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사라지거나 혹은 남아 있는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석, 기념화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지구발전오라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보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전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맵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8월1일 발산마을 역사문화박물관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특집 공연

전통예술의 틀을 깨다...



남창동 명인의 줄타기 묘기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오늘의 전통예술'을 그려나가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24일부터 남도소리울터 공연장에서 토요일마다 '그린국악' 특집공연 3편을 잇달아 무대에 올린다.

먼저 24일에는 줄타기계 아이돌 남창동 '인생 줄타기'가 펼쳐진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청년 어름사니(줄 타는 사람) 남창동은 국내 유일의 '300도 거꾸로 연속 회전' 기술 보유자다. 이날 무대에서는 아버지인 남해웅 명창의 해학 넘치는 재담과 함께 묘기에 가까운 줄타기 공연을 선보인다.

7월29일에는 무용 특집 '흐르다 깊어지다 넓어지다'를 공연한다. 도립국악단 무용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예술적 지향성을 집약해놓은 무대다. 안무가

김유미의 연출과 류형선 예술감독의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음악이 더해져 '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8월12일에는 '그린국악' 흥행 프로그램인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3 '당신이 답이다'를 개최한다. 첫 강연 주인공은 '국민 역사교사'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 일타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이다. 황 소장은 광복절 특집 '나와 당신의 오늘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관객을 맞는다. 이어 시인 정호승과 작가 유시민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총연출을 맡은 류형선 예술감독은 "전통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특집공연들을 '그린국악' 시즌 곳곳에 배치해줬으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이순옥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자연 속 함께 어우러지는 삶 '동행'

이순옥 초대전, 25일까지 보성아트홀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 조각 전시회가 마련됐다.

오는 25일까지 보성아트홀(보성군 화진면 우암길21)에서 열리는 이순옥 작가 초대전 '동행'이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994년도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모두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사람 형상의 조각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으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도 닮아 있다. 돌이나 나무 등 자연물과의 조화도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 작가는 "내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준 가족과 친지,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인연들과 어우러져 사는 삶이다"며 "이번 전시가 동행하는 삶의 행복함과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순옥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한국교원대 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전남 중등미술교원전, 교원6인 동행전,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지구촌가족 친선교류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전남도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해보중·장흥중 교장을 역임했다. /최명진 기자

녹음 우거진 초여름날 만끽하는 '국악의 향연'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토요일상설무대로 가무악 종합공연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녹음이 진 초여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살면서 욕심부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살자는 내용의 단가

'벚나무'를 시작으로,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기악합주 '천년만세'가 이어진다.

이어 어린 심정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동네에 동냥하러 다니는 심봉사 이야기 담은 판소리 심청가 중 '동냥 젖 얻어 먹이는 대목',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곡 '침향무'에 맞춰 선보이는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으로 피리·대금중주 '길타령',

'별우조타령', '군악', 경상도 민요 '상주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 '옹헤야', 경상도 농악 중 무용농악 '복춤'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전라도의 흥과 신명을 느껴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을 통해 초여름 더위를 날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무용농악 중 복춤 모습(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장악과 (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